

# 『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에 대한 번역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仙蘭·李容範\*

## 對於『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의 翻譯研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仙蘭·李容範

通過分析『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條文中尤在涇註釋的特徵，得出如下結論：認為血痺的發病原因，主要是陽虛衛外不固，其主要症狀，是身體不仁。與風邪所致的風痺區別開。陰陽俱微中的陰陽，解釋為‘該人迎，跌陽，太溪爲言’。認為虛勞喘症的病因是氣虛或陽虛，與一般認為是腎不納氣的觀點有所不同。認為建中的中是四運之軸，陰陽之機，具體指脾胃。營衛生成于水穀，水穀轉輸于脾胃。脾胃是陰陽循環的關鍵。爲了和陰陽調營衛，強調必需使用求于中氣之立的治法。

Key Words: 血痺, 虛勞, 風痺, 氣虛喘, 建中.

## I. 서론

清代 尤在涇은宋代 林億 등이 정리한 『金匱要略』 옛 판본에서 雜病方이하 3편을 제외한 22편에 대하여 原文과 注釋을 수록하여, 『金匱要略心典』이란 書名으로 발간하였다. 『金匱要略心典』은 현재 『金匱要略』의 중요한 注釋書중의 하나이다.

『金匱要略心典』의 제 6篇에서는 비교적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血痺와 虛勞에 대하여 尤在涇이 주를 달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치료 처방으로 수록된 황기계지오물탕 계지가용골모로탕 소견중탕 황기건중탕 팔미신기환 산조인탕 등은 현재에도 많이 활용되는 처방이다.

여기에서는 『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의 원문 및 尤在涇 주를 번역하고, 현대 주석서와 비교 고

찰함으로써, 尤在涇 주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범위

『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의 원문과 尤在涇 注를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대 주석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 2. 저본

본 연구에 사용된 저본은 明清名醫全書大成 중 尤在涇醫學全書에 실린 『金匱要略心典』<sup>1)</sup>이다. 다만 원문을 기록할 때 底本에 簡體字로 되어 있는 것을 繁

\* 교신저자 :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 730-0668, A95005@gmail.com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17-120.

體字로 바꾸었다. 底本에는 각 조문에 번호가 없었지만, 閱覽上의 便宜를 위하여 조문번호를 逐條附記했다. 또한 大星文化社에서 출판한 趙開美本『仲景全書』<sup>2)</sup>를 校勘本으로 하여 校勘을 달았고, 底本の 각주에 있는 校勘내용도 校勘에 포함하였다.

### 3. 句讀과 해석, 按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각 조문에 필요한 부분에는 按을 달아 여러 주석서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비교 고찰하였다.

## Ⅲ. 본 론

[原文] 6-1

問曰：血痺之病，以何得之？師曰：夫尊榮人，骨弱肌膚盛，重因疲勞汗出<sup>①</sup>，臥不時動搖<sup>②</sup>，加被微風，遂得之。但以脈自微澀<sup>③</sup>，在寸口，關上小緊<sup>④</sup>，宜鍼引陽氣，令脈和緊去則愈。

[校勘]

①重因疲勞汗出：趙開美本에는 ‘因’이 ‘困’字로 되어 있다. ‘困’으로 보면, 거듭 피로에 인하여 땀이 난다는 뜻이고, ‘困’으로 보면, 조금만 일을 해도 몸이 무겁고 노곤하고 피로하며, 땀이 잘 난다는 뜻이다. 땀이 잘 난다는 것은 陽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②臥不時動搖：잠 잘 때 숙면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뒤척거림을 의미한다. 이 또한 陽氣를 손상하는 요인이 된다.

③澀：趙開美本에는 ‘澀’으로 되어 있는데 古文에서 ‘澀’자와 ‘澀’자는 서로 통한다.

[注釋]

(1) 但以脈自微澀，在寸口，關上小緊：이 구절에 대

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但以脈自微澀在寸口’로 보면서 즉 ‘寸口에 微澀맥이 나타나고 關上에 小緊맥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한 것이고<sup>3)</sup>, 하나는 ‘但以脈自微澀，在寸口，關上小緊脈’으로 句讀함으로써 脈이 微澀하고 寸口와 關上脈이 小緊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의 차이점은 앞의 것은 衛陽虛에 중점을 두고, 뒤의 것은 氣血虛에 중점을 둔 것이다.<sup>4)</sup>

[解釋]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血痺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스승이 말씀하셨다.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편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뼈가 약하나 겉으로 보기에 풍만하며, 가벼운 일을 하여도 몸이 무겁고 노곤하고 피로하며 땀이 나며, 잠을 자면서 항상 몸을 움직이니, 약한 바람을 맞아도 병에 걸립니다. 이때의 맥은 微하면서 澀하며 寸口脈과 關上脈은 小하고 緊한 脈象을 나타내는데 침으로 陽氣를 誘引하여 脈을 고르게 하면 緊한 것이 없어지면서 낫습니다.”

[注]

陽氣者，衛外而爲固也。乃因疲勞汗出，而陽氣一傷，臥不時動搖，而陽氣再傷，於是風氣雖微，得以直入血中而爲痺。經云：邪入於陰則痺也。脈微爲陽微，澀爲血滯，緊則邪之征也。血中之邪，始以陽氣傷而得入，終必得陽氣通而後出。而痺之爲病，血既以風入而痺於外，陽亦以血痺而止於中，故必針以引陽使出，陽出而邪去，邪去而脈緊乃和，血痺乃通，以是知血分受痺，不當獨治其血矣。

[解釋]

『內經』(『素問生氣通天論篇第三』)에서 “陽氣는 外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181-182.

王占璽 主編. 金匱要略臨床研究.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 150.

4) 李彩 撰.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 48.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49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5.

2)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p. 369-373.

를 保衛하여 堅固하게 한다.”<sup>5)</sup>고 하였다. 疲勞로 인하여 脈이 나면 陽氣가 한번 상하게 되고, 잠을 자면서 항상 몸을 움직이면 그 陽氣가 거듭 상하게 되니, 이에 風氣가 비록 약하더라도 직접 血分으로 들어가 痺病이 생기게 된다. 『內經』(『素問宣明五氣論篇第二十三』)에서 “邪氣가 陰으로 들어오면 痺病이 생긴다.”<sup>6)</sup>라고 하였다. 맥이 微한 것은 陽이 微한 것이고, 澀한 것은 血이 鬱滯된 것이며, 緊한 것은 邪氣가 있다는 것이다. 血에 들어간 邪氣는 처음에 그 陽氣가 상하여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陽氣가 통하여야 나가게 된다. 따라서 痺로 인한 病은 血이 이미 風의 침입으로 인하여 밖에서 鬱滯되고, 陽氣 또 한 血痺로 인하여 中에 머무르니, 그러므로 반드시 침으로 그 陽을 誘引하여 나가게 하는 것이다. 陽이 나가면 邪氣도 따라서 나가게 되고, 邪氣가 나가면 脈이 緊한 것이 비로소 조화롭게 되며 血이 막힌 것도 비로소 통하게 되니, 이로부터 血分이 痺를 당하였을 때 단순히 血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按]

尤在涇은 血痺의 주요한 原因을 衛外不固하여 風邪가 血分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 脈象에 대하여는 맥이 微한 것은 陽이 약한 것이고, 澀한 것은 血滯가 생긴 것이고, 緊한 것은 邪氣가 들어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치료에 대하여는 血에 들어온 邪氣는 처음에 陽氣가 상하여 들어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陽氣가 통하여야 다시 나가게 되므로 침으로 陽氣를 誘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사기가 알개 침입하였기 때문에 촌구와 관상에서만 緊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原文] 6-2

血痺陰陽俱微，寸口關上微，尺中小緊，外證身體

不仁，如風痺狀，黃芪桂枝五物湯主之。

[解釋]

血痺病에 陰과 陽이 모두 不足하며, 寸口와 關上의 脈이 微하고, 尺中의 脈象은 小緊하며, 外見上으로 몸의 감각이 무디어 風痺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날 때에는 黃芪桂枝五物湯으로 치료한다.

[注]

陰陽俱微，該<sup>①</sup>人迎，趺陽，太溪爲言<sup>①</sup>。寸口關上微，尺中小緊，卽陽不足而陰爲痺之象。不仁者，肌體頑痺，痛痒不覺，如風痺狀，而實非風也。黃芪桂枝五物和榮之滯，助衛之行，亦針引陽氣之意。以脈陰陽俱微，故不可針而可藥，經所謂陰陽形氣俱不足者，勿刺以針而調以甘藥也。

[校勘]

①該：‘該’의 通假字이다.

[注釋]

(1)陰陽俱微，該人迎，趺陽，太溪爲言：‘陰陽俱微’에 대하여 尤在涇은 脈象으로 해석하였는데, 現代注釋書들에서는 病機로 보면서 ‘陰陽俱微’를 營衛氣血의 不足으로 보았다.<sup>8)</sup>

[解釋]

陰陽俱微라는 것은 人迎, 趺陽, 太溪를 말하는 것이다. 寸口脈과 關上脈이 微하며, 尺中脈은 小緊한 것은, 陽이 不足하여 陰이 痺하게 된 것을 말한다. 不仁이라는 것은 肌膚와 身體에 頑固한 痺가 생겨, 통증과 가려움증을 느끼지 못하고, 風痺증상인 듯하지만 사실은 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黃芪桂枝五物湯은 營分의 鬱滯된 것을 調和시키고, 衛의 運行을 도와주니, 또한 침으로 그 陽을 誘引한다는 뜻과 같다. 陰과 陽이 모두 약하므로 침을 사용할 수 없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그것은 『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第四』)에서 이른바 陰陽形氣가 모두 不足한자는 침을 놓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49.

6)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40.

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5.

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5.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83.

王占繼 主編. 金匱要略臨床研究.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 152.

지 말고,甘한 약으로 調理해야 한다<sup>9)</sup>는 뜻이다.

[按]

尤在涇은 血痺와 風痺를 비교하여 서로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였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쓴 것은 『內經』에서 말하는 ‘陰陽形氣俱不足者, 勿刺以針而調以甘藥也.’의 이론에 의하여 앞 조문보다 병이 더 심한 상태를 지적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血痺의 증상은 주로 국부 肌肉의 麻木이 특징인데 만약 邪氣의 침입 정도가 심하면 痠痛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如風痺狀’이라 한 것이나, 그러나 血痺와 風痺의 증상은 차이가 있으니, 血痺는 麻木이 위주이고, 風痺는 疼痛이 위주이다. 윗 조문에서는 邪氣의 침입 정도가 비교적 얕아 脈이 다만 寸口 關上에서 小緊하였는데, 이 조문에서는 邪氣의 침입 정도가 비교적 심하여 ‘陰陽俱微’라고 하였고, 또 ‘尺中小緊’이라고 하였다.”<sup>10)</sup>라 하였다.

[原文] 6-3

黃芪桂枝五物湯方

黃芪三兩, 芍藥三兩, 桂枝三兩, 生薑六兩, 大棗十二枚  
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溫服七合, 日三服.

[解釋]

황기계지오물탕방

황기 3냥, 작약 3냥, 계지 3냥, 생강 6냥, 대추 12알.  
위의 5가지 약을 물 6되로 달여 2되가 되면 1번에 7홉씩 하루 3번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原文] 6-4

夫男子平人<sup>①</sup>, 脈大爲勞, 脈極虛亦爲勞.

[注釋]

①平人: ‘平人’은 外形으로는 정상인과 비슷하지만 內臟氣血이 이미 虛損된 사람을 말한다.

[解釋]

9)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p. 48. 원문에는 “諸小者, 陰陽形氣俱不足, 勿取以針, 而調以甘藥之.”로 되어 있다.

1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63-64.

무릇 남성으로서 外見上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지만, 맥이 大한 것은 虛勞인데, 脈이 몹시 虛한 것도 또한 虛勞이다.

[注]

陽氣者, 煩勞則張, 故脈大. 勞則氣耗, 故脈極虛. 李氏曰: 脈大非氣盛也, 重按必空濡. 大者, 勞脈之外暴者也; 極虛者, 勞脈之內衰者也.

[解釋]

『內經』(『素問生氣通天論篇第三』)에서 “陽氣는 過勞하면 펼쳐진다.”고 하였으므로 그 맥이 大하다. 勞하면 그 氣가 소모되므로 맥이 매우 허하다. 李氏(李紘)는 “맥이 大한 것은 氣가 성한 것이 아니고, 눌러 짚어 보면 기필코 텅 비고 유약하다. 大한 것은 과로하여 脈이 밖으로 두드러져 나온 것이고, 極虛한 것은 과로하여 脈이 안에서 衰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原文] 6-5

男子面色薄, 主渴及亡血. 卒喘悸, 脈浮者, 裏虛也<sup>①</sup>.

[注釋]

(1) 脈浮者, 裏虛也: 『醫宗金鑑』에서는 ‘脈浮者, 裏虛也’를 衍文으로 보고 있다.<sup>11)</sup>

[解釋]

남자의 얼굴빛이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것은, 갈증 및 亡血을 의미한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脈이 浮한 것은 속이 虛한 것이다.

[注]

渴者, 熱傷陰氣, 亡血者, 不華於色. 故面色薄者, 知其渴及亡血也. 李氏曰: 勞者氣血俱耗, 氣虛則喘, 血虛則悸. 卒者, 猝然見此病也. 脈浮爲裏虛, 以勞則眞陰失守, 孤陽無根, 氣散於外, 而精奪於內也.

[解釋]

갈증이 나는 것은 열이 陰氣를 상한 것이고, 亡血한 자는 그 血색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얼굴색이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것은 갈증이 있거나 亡血하였다

11)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499.

는 것을 알 수 있다. 李氏(李炆)는 “勞한 자는 氣血이 모두 消耗되는데, 氣가 虛하면 숨을 헐떡이고 血이 虛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卒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러한 병이 생긴 것이다. 맥이 浮한 것은 裏가 虛한 것인데, 勞하면 眞陰이 지켜지지 못하고 孤陽이 根本을 잃어, 氣가 밖으로 흩어져서 精이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按]

虛勞의 喘症에 대하여 尤在涇은 李炆의 말을 인용하여 ‘氣虛則喘’한다고 하였는데<sup>12)</sup>, ‘腎主納氣, 腎虛不能納氣, 故氣喘’으로 본 경우도 있다.<sup>13)</sup>

[原文] 6-6

男子脈虛沉弦, 無寒熱, 短氣裏急, 小便不利, 面色白, 時目瞑兼衄, 少腹滿, 此爲勞使之然. 勞之爲病, 其脈浮大, 手足煩, 春夏劇, 秋冬差, 陰寒精自出<sup>14)</sup>, 痿削不能行. 男子脈浮弱而澀, 爲無子, 精氣清冷.

[注釋]

(1) 『醫宗金鑑』에서는 ‘陰寒精自出’의 ‘寒’字가 마땅히 ‘虛’字여야 한다고 보았다.<sup>14)</sup>

[解釋]

남자의 脈象이 虛하고 沈弦하며, 惡寒發熱하는 증상이 없고, 호흡이 急促하고, 아랫배가 땅기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안색이 창백하고, 때로 두 눈이 아물거리면서, 코피가 나며 아랫배가 그득한 것은 虛勞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虛勞病의 증상은 脈이 浮大하고, 손발이 달아오르고, 봄과 여름에 더 심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좀 덜하며, 前陰이 차고 정액이 저

절로 나오며,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없어 걸어 다니지 못한다. 남자의 脈이 浮弱하고 澀한 경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그것은 정액이 묽고 냉하기 때문이다.

[注]

脈虛沉弦者, 勞而傷陽也, 故爲短氣裏急, 爲小便不利, 少腹滿, 爲面色白, 而其極則并傷其陰, 而目瞑兼衄. 目瞑, 目不明也. 脈浮者, 勞而傷陰也, 故爲手足煩, 爲痿削不能行, 爲春夏劇而秋冬差, 而其極則并傷其陽, 而陰寒精自出, 此陰陽互根, 自然之道也. 若脈浮弱而澀, 則精氣交虧而清冷不溫, 此得之天稟薄弱, 故當無子.

[解釋]

脈이 虛하고 沈弦한 것은 勞로 인하여 陽氣를 상한 것이니, 그러므로 숨이 가쁘고 속이 땅기며,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아래배가 그득하며, 얼굴색이 희게 되는데, 심하면 陰도 상하게 되어 目瞑의 증상이 나타나고 겹하여 코피가 나오게 된다. 目瞑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맥이 浮한 것은 勞病으로 陰을 상한 것이니, 그러므로 손발에 열이 나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없어 걸어 다니지 못하며, 봄과 여름에는 심해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좀 좋아지는데, 심하면 陽도 상하게 되어 陰이 냉해져서 정액이 저절로 나오니, 이것은 陰과 陽이 서로 根本이 되는 자연의 도리이다. 만약 脈이 浮弱하고 澀하면 精氣가 교대로 소모되어 묽고 차져서 溫하지 않는데, 이는 선천적인 품부가 박약하게 태어난 것이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다.

[按]

尤在涇은 虛勞로 陽이 손상된 脈虛沈弦의 경우(短氣裏急, 小便不利, 少腹滿, 面色白)와 陰이 손상된 脈浮의 경우(手足煩, 痿削不能行, 春夏劇而秋冬差)로 대별하여 설명하면서, 또한 陰陽互根의 도리로 ‘陽損及陰(目瞑兼衄), 陰損及陽(陰寒精自出)’하므로 여러 증상이 잇달아 생기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金匱要略講義』에서는 面白 時目瞑 衄 등은 肝脾血虛證이고, 短氣裏急 小便不利 少腹滿 등은 腎陽不

1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87. 에서는 ‘氣虛’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氣爲血帥, 血爲氣母’, ‘氣行則血行, 血至氣乃至’하므로 失血한 사람은 먼저 氣虛를 초래하게 되는데 心肺의 氣가 不足하면 조금만 운동을 하여도 헐떡이게 된다.

1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7.  
王占璽 主編. 金匱要略臨床研究.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 156.

1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498.

足證이며, 手足煩 春夏劇 秋冬瘥는 陰虛陽亢으로 陰寒精自出은 陰虛及陽으로, 酸劑不能行은 腎虛로 보고 있다.<sup>15)</sup>

[原文] 6-7

夫失精家, 少腹弦急, 陰頭寒, 目眩, 髮落, 脈極虛芤遲, 爲清穀, 亡血, 失精<sup>(1)</sup>. 脈得諸朧動微緊, 男子失精, 女子夢交, 桂枝龍骨牡蠣湯主之.

[注釋]

(1) 亡血, 失精: 『醫宗金鑑』에서는 ‘亡血, 失精’이하의 구절은 위 문장의 문맥과 서로 통하지 않으니 다른 구절로 옮겨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sup>16)</sup>

[解釋]

平素 遺精이나 夢泄이 있는 사람이 少腹部가 당기고 부드럽지 못하며, 陰莖龜頭가 冷하며, 현기증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脈象이 아주 虛하면서 芤하고 遲한데, 이는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대변으로 나가거나 피를 많이 흘렸거나 精을 많이 상실한 것이다. 맥이 芤하고 動하고 微하고 緊하면, 남자는 精을 상실하게 되고 여자는 꿈속에서 성행위를 하는데, 桂枝龍骨牡蠣湯을 쓴다.

[注]

脈極虛芤遲者, 精失而虛及其氣也, 故少腹弦急, 陰頭寒而目眩. 脈得諸朧動微緊者, 陰陽并乖而傷及其神與精也, 故男子失精, 女子夢交. 沈氏所謂勞傷心氣, 火浮不斂, 則爲心腎不交, 陽泛於上, 精孤於下, 火不攝水, 不交自泄, 故病失精. 或精虛心相內浮, 擾精而出, 則成夢交者是也. 徐氏曰: 桂枝湯外證得之, 能解肌去邪氣, 內證得之, 能補虛調陰陽, 加龍骨, 牡蠣者, 以失精夢交爲神精間病, 非此不足以收斂其浮越也.

[解釋]

脈이 극도로 虛하고 芤하고 遲한 것은 精이 손실되어 虛가 그 氣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므로 少腹이 당기고 陰莖龜頭가 冷하며 현기증이 난다. 脈象이 朧動微緊한 것은 陰陽이 모두 어그러져 神과 精까지 상한 것이니 그러므로 남자는 遺精하게 되고 여자는 꿈속에서 성생활을 하게 된다. 沈氏(沈明宗)가 이른바 “勞하여 心氣를 상하고, 火가 上浮하고 收斂되지 않으면 心과 腎이 不交하여, 陽은 上部로 넘치고 精은 홀로 아래로 향하니, 火가 水를 收攝하지 못하여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정액이 저질로 나오게 되므로 失精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혹은 精이 虛하여 心이 상대적으로 안에서 浮하니, 그 精氣를 건드려서 나오게 하므로 꿈속에서 성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徐氏(徐彬)는 “桂枝湯을 外證에 사용하면 解肌하고 邪氣를 제거할 수 있고, 內證에 사용하면 補虛하고 陰陽을 조절할 수 있으며, 龍骨, 牡蠣를 넣는 것은 失精夢交가 神과 精 사이에 생긴 병으로서, 이것이 아니고는 浮하고 上越한 것을 收斂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按]

『金匱要略講義』<sup>17)</sup>에서 “遺精환자는 항상 夢精을 하여 정액이 매우 모손되어 있고, 陰이 虛하여 陽에 까지 영향을 주어 少腹이 弦急하고 외음부가 차며, 精血이 적으니, 目眩, 髮落의 증상이 나타난다. ‘極虛芤遲, 爲清穀, 亡血, 失精’은 끼어든 글이니, 그 의미는 極虛芤遲한 맥상은 失精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亡血 혹은 下利清穀의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朧動은 陽이고, 微緊은 陰이니, 이른바 ‘脈得諸朧動微緊’은 혹은 朧動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微緊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4가지 맥이 동시에 출현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脈과 證은 이 遺精 혹은 夢交가 陰陽兩虛의 증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桂枝湯을 써서 陰陽을 조화롭게 하고, 龍骨 牡蠣를 가하여 안정시키고 수렴시키는 것이니, 만약 陽이 능히 固攝될 수 있고 陰이 능히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 精이 外로 泄하지는 않을 것이다.

1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7.

16)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500.

1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8.

본 조문에서는 동일한 질병에 다른 맥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질병에 같은 맥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失精家は 極虛 혹은 芤 혹은 遲脈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朧動 혹은 微緊한 맥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亡血, 下利清穀의 환자는 極虛 혹은 芤遲의 맥이 나타날 수 있다.”라 하였다.

[原文] 6-8

桂枝龍骨牡蠣湯方

桂枝<sup>①</sup> 芍藥 生薑各三兩,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龍骨 牡蠣各三兩

上七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分溫三服.

[校勘]

①桂枝: 趙開美本에서는 桂枝의 용량이 2냥으로 되어 있다.

[解釋]

계지용골모려탕

계지 작약 생강 각 3냥, 감초 2냥, 대조 12알, 용골 모려 각 3냥.

위의 7가지 약을 물 7되에 넣고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한다.

[原文] 6-9

天雄散方

天雄三兩 炮, 白朮<sup>①</sup>八兩, 桂枝六兩, 龍骨三兩

上四味, 杵爲散, 酒服半錢匕, 日三服, 不知, 稍增之.

[校勘]

①白朮: 趙開美本에서는 白朮의 용량이 6냥으로 되어 있다.

[解釋]

천웅산

천웅 3냥 싸서 구운 것, 백출 8냥 계지 6냥 용골 3냥.

위의 약을 가루 내어 한번에 5푼씩 하루 3번 술에 타서 먹는데 효과가 없으면 양을 조금 늘린다.

[注]

按, 此疑亦後人所附, 爲補陽攝陰之用也.

[解釋]

생각건대, 이것은 후세인들이 附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補陽攝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按]

『金匱要略講義』에서 天雄, 桂枝, 白朮은 溫補中陽하고, 龍骨은 收斂攝精한다고 하였다.<sup>18)</sup>

[原文] 6-10

男子平人, 脈虛弱細微者, 喜盜汗也. 年人五六十, 其病脈大者, 痺俠背行, 若腸鳴, 馬刀俠癭者<sup>①</sup>, 皆爲勞得之. 脈沉小遲, 名脫氣, 其人疾行則喘喝<sup>②</sup>, 手足逆寒, 腹滿, 甚則瀉泄, 食不消化也. 脈弦而大, 弦則爲減, 大則爲芤, 減則爲寒, 芤則爲虛, 虛寒相搏, 此名爲革, 婦人則半產漏下<sup>③</sup>, 男子則亡血失精.

[校勘]

①喝: 趙開美本에서는 ‘渴’자로 되어 있다.

②漏下: 『金匱要略講義』에서는 월경기간의 下血이 아니라 淋漓不斷이라고 하였다.<sup>19)</sup>

[注釋]

(1)若腸鳴, 馬刀俠癭者: 『醫宗金鑑』에서는 ‘若腸鳴’이라는 세 글자는 상하와 문맥이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必是 錯簡이라고 보고 ‘俠癭’중의 ‘癭’字는 마땅히 ‘瘰’字여야 한다고 하였다.

[解釋]

平素 외형으로는 특별히 현저한 病態를 보이지 않은 男性으로서, 脈象이 虛弱細微한 자는 잠을 자면서 땀을 흘리기 쉽다. 年齡이 50-60세가 되어 脈이 大하고 누르면 힘이 없고, 지린 것이 등까지 미치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馬刀俠癭이 있는 것은 모두 勞傷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脈象이 沈하면서 小遲한 것은 脫氣라고 하는데, 빨리 걸으면 숨이 차서 혈떡거리고 손발이 차며 배가 그득한데, 심하면 대변이

1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9.

1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0.

물고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는다. 脈象이 弦하면서 大한데, 弦한 것 같으나 누르면 減弱하고, 大脈 같으나 속이 비어서 芤脈과 비슷한데, 減弱한 증상은 寒證에서 볼 수 있으며, 芤脈은 虛證에서 볼 수 있으니, 虛證과 寒證이 서로 합쳐진 것을 革脈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流産이라든가 漏下의 증상에, 남자는 失血이라든가 遺精의 경우에 나타난다.

[注]

平人, 不病之人也. 脈虛弱細微, 則陰陽俱不足矣. 陽不足者不能固, 陰不足者不能守, 是其人必善盜汗. 人年五六十, 精氣衰矣, 而病脈反大者, 是其人當有風氣也. 痺俠背行, 痺之俠脊者, 由陽氣不足, 而邪氣從之也. 若腸鳴, 馬刀, 俠瘦者, 陽氣以勞而外張, 火熱以勞而上逆. 陽外張, 則寒動於中而爲腹鳴, 火上逆, 則與痰相搏而爲馬刀, 俠瘦. 李氏曰: 瘦生腋下曰馬刀, 又夾生頸之兩旁者爲俠瘦. 俠者, 挾也. 馬刀, 蠙蛤之屬, 瘡形似之, 故曰馬刀. 瘦, 一作纓, 發於結纓之處. 二瘡一在頭, 一在腋下, 常相聯絡, 故俗名竊串.<sup>20)</sup> 脈沉小遲, 皆陰象也. 三者并見, 陰盛而陽乃亡矣, 故名脫氣, 其人疾行則喘喝者, 氣脫而不固也. 由是外無氣而手足逆冷, 胃無氣而腹滿, 脾無氣而漉泄食不化, 皆陽微氣脫之證也. 脈弦者陽不足, 故爲減爲寒, 脈大者陰不足, 故爲芤爲虛, 陰陽并虛, 外強中乾, 此名爲革, 又變革也. 婦人半產, 漏下, 男子亡血, 失精, 是皆失其產乳生育之常矣, 故名曰革.

[解釋]

平人이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다. 脈象이 虛弱하고 細微하다는 것은 陰과 陽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陽이 不足하면 밖이 堅固하지 못하고 陰이

不足하면 안이 지켜질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주 盜汗할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5~60이 되면 精氣가 衰弱해지는데 오히려 脈이 大하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風氣가 있을 것이다. 저린 것이 등까지 미치며 척추의 양측에 麻痺感이 있는 것은 陽氣가 不足하여 사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만약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겨드랑이 아래 혹은 頸部에 瘰癧가 생기는 것은, 陽氣가 과로로 인하여 밖으로 확산되고, 火熱이 과로로 인하여 上逆한 것이다. 陽이 밖으로 확산되면 寒이 안에서 움직여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게 되고, 火가 上逆하면 痰과 서로 합쳐서 겨드랑이 아래 혹은 頸部에 瘰癧가 생긴다. 李氏(李炆)는 “瘰이 겨드랑이에 생긴 것을 馬刀라고 부르고 목의 양옆에 생긴 것을 俠瘦이라고 한다. (俠은 挾이라는 뜻이다. 馬刀는 蠙蛤과도 같은 것인데, 膿瘡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여 馬刀라고 불렀다. 瘦은 纓이라고도 하는데, 갓끈을 매는 곳에 생긴다. 2가지 膿瘡가 하나는 頭(頸)部에 생기고 하나는 겨드랑이 아래에 생기는데, 두 膿瘡가 항상 서로 연결되니, 그러므로 瘰串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였다. 脈이 沈하고 小하고 遲한 것은 모두 陰의 象이다. 3가지 脈象이 함께 나타나면 陰은 성하지만 陽이 이미 亡한 것이므로 脫氣라고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빨리 걸으면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것은 氣가 脫離하여 堅固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밖에 氣가 없어져서 손발이 차고, 胃에 氣가 없어져서 배가 그득하며, 脾에 氣가 없어져서 설사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모두 陽이 微하고 氣가 脫離하여 생긴 증상이다. 脈象이 弦하지만, 陽이 부족하므로, 누르면 減弱한다고 하고 또 寒證이라고 한 것이며, 脈이 大하지만, 陰이 不足하므로, 芤라고 하고 또 虛證이라고 한 것이다. 陰과 陽이 모두 虛하나, 밖은 강한 것 같고 속이 사기에 침입 당한 것이므로 이 이름을 革이라고 한 것이니, 또한 變革의 의미이다. 여자가 流産, 漏下하고, 남자가 亡血, 失精하는 것은 모두 產乳生育의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름을 革이라고 한다.

[按]

20) 『金匱要略廣注』원문에 의하면 “瘦生腋下曰馬刀, 又夾生頸之兩旁者爲俠瘦.”까지 큰 글씨로 되어 있고, “俠者, 挾也. 馬刀, 蠙蛤之屬, 瘡形似之, 故曰馬刀. 瘦一作纓, 發於結纓之處. 二瘡一在頭, 一在腋下, 常相聯絡, 故俗名竊串.”까지 작은 글씨로 되어 위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尤在涇醫學全書』에서는 모두 큰 글씨로 되어 있다. 번역할 때 『金匱要略廣注』의 원문을 따랐다.



여기에서의 盜汗은 陰陽氣血이 모두 虛한 것이므로, 계지가용골모려탕이나 二加용골모려탕을 사용할 수 있다. 陰虛火旺으로 인한 盜汗인 경우 맥이 浮數하거나 弦細하고, 舌紅 心煩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처방은 당귀육황탕을 사용한다.<sup>21)</sup>

나이가 50-60이 되어 맥이 大하면서 누르면 無力한 것은 精氣가 안에서 쇠퇴한 것으로, 經脈이 영양하지 못하여 등에 麻木증상이 생긴다. 만약 腸鳴증상이 있다면, 脾氣가 虛寒하여 運化작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만약 馬刀나 疝의 증상이 있다면, 陰虛陽浮하여 虛火가 上炎한 데다가 痰과 서로 엉겨 병이 된 것이다. 등의 麻木증상과 疝과 마도 疝이 비록 虛寒 虛熱挾痰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허로로 인하여 생긴다는 점은 같다.<sup>22)</sup>

脈沈小遲는 脾腎陽虛의 반응으로서, 腎氣가 虛하면 빨리 걸어갈 때 氣喘하고, 陽虛하면 寒을 生하여 寒이 外에서 성하게 되어 手足이 逆冷하며, 脾胃의 陽이 虛하면 食物을 腐熟運化하지 못하여, 腹滿 便澀 飲食不化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古人은 이 증상에 대하여 理中湯加附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3)</sup>

革脈은 弦과 大의 맥상을 포괄한다. 원래의 弦脈은 늘러도 변화가 없으나, 革脈

의 弦은 누르면 팽팽한 느낌이 줄어들므로, '弦則爲減'이라 한 것이며, 원래의 大脈은 洪大有力한 것이나 革脈의 大는 大하면서 속이 공허하여 芤脈과 비슷하므로, '大則爲芤'라 한 것이다. 늘러서 팽팽한 느낌이 줄어들드는 것은 寒을 의미하고, 속이 공허한 것은 虛를 의미한다. 革脈과 芤脈은 弦大無力한 공통점이 있으나, 革脈은 芤脈에 비하여 약간 硬하다.<sup>24)</sup>

[原文] 6-11

虛勞裏急，悸，衄，腹中痛，夢失精，四肢酸疼，手足煩熱，咽乾，口燥，小建中湯主之。

[解釋]

虛勞로 속이 땅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코피가 나고 뱃속이 아프며 夢泄이 있고 팔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손발이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고 목과 입이 마르는 데에는 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

[注]

此和陰陽調營衛之法也。夫人生之道，曰陰曰陽，陰陽和平，百疾不生。若陽病不能與陰和，則陰以其寒獨行，爲裏急，爲腹中痛，而實非陰之盛也。陰病不能與陽和，則陽以其熱獨行，爲手足煩熱，爲咽乾，口燥，而實非陽之熾也。昧者以寒攻熱，以熱攻寒，寒熱內賊，其病益甚。惟以甘酸辛藥，和合成劑，調之使和，則陽就於陰，而寒以溫，陰就於陽，而熱以和，醫之所以貴，識其大要也。豈徒以寒可治熱，熱可治寒而已哉。或問：和陰陽調營衛是矣，而必以建中者，何也？曰：中者，脾胃也，營衛生成於水穀，而水穀轉輸於脾胃，故中氣立，則營衛流行而不失其和。又中者，四運之軸，而陰陽之機也，故中氣立，則陰陽相循，如環無端，而不極於偏。是方甘與辛合而生陽，酸得甘助而生陰，陰陽相生，中氣自立，是故求陰陽之和者，必於中氣，求中氣之立者，必以建中也。

[解釋]

이것은 陰陽을 和하고 營衛를 조절하는 치료방법이다. 무릇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도리를 陽과 陰이라고 하는데, 陰陽이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면 모든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陽에 病이 들어 陰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陰은 寒만 홀로 行하기 되기 때문에 속이 땅기고 배가 아프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陰이 성한 것이 아니다. 陰에 病이 들어 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陽은 熱만 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손발이 뜨겁고 목과 입이 마르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陽이 熾盛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寒의 증상을 보고 寒을 공격하고 열의

21)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9.

2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69.

2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0.

2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0.

증상을 보고 열을 내리니, 寒과 熱이 안에서 난을 일으켜 그 병이 더 심하게 된다. 오직 甘酸辛한 약을 서로 어울리게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어, 인체의 陰陽을 조화롭게 한다면, 陽이 陰으로 나아가 寒이 溫하게 될 것이며, 陰이 陽으로 나아가 熱이 조화롭게 될 것이다. 의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큰 요점을 아는 것이니, 어찌 한갓 寒은 熱을 치료할 수 있고, 熱은 寒을 치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겠는가? 어떤 이가 묻기를 “陰陽을 화하고 營衛를 조절하는데 반드시 建中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中이라는 것은 脾胃를 말하는 데, 營衛는 水穀에서 생기고, 水穀은 또 脾胃에서 轉輸된다. 그러므로 中氣가 확립되면, 營衛가 流行하여 調和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中이라는 것은 또한 사방으로 움직이는 축이고 陰陽의 고동이다. 그러므로 中氣가 확립되면 陰과 陽이 서로 이어받아 끊임 없이 순환하면서도 어느 하나에 극도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처방에서 甘味와 辛味는 서로 합하여 陽을 생기게 하고 酸味는 甘味の 도움을 받아 陰을 생기게 하니, 陰陽이 相生하면 中氣가 자연히 확립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陰陽의 調和를 구하려면 반드시 中氣에서 求하고 中氣의 확립을 求하려면 반드시 建中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 하였다.

[按]

尤在涇은 建中の 의미에 대하여, 中은 陰陽의 고동으로 脾胃를 말하는데, 營衛가 脾胃에서 생성되므로, 脾胃의 氣가 확립되면 營衛가 조화롭게 되고, 陰陽이 고르게 된다고 하여, 和陰陽 調營衛의 뜻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체 陰陽의 偏盛 偏衰에 의하여 熱證 寒證이 나타나므로, 陰陽이 모두 虛할 때에는 寒熱錯雜의 證이 나타난다. 陰虛하여 熱이 발생되면, 衄血 手足煩熱 咽乾口燥 등의 熱證이 나타나고, 陽虛하여 寒이 발생되면, 寒急 腹中痛의 寒證이 나타나며, 心營이 부족하면, 心悸증상이 나타나고, 腎이 虛하여 陰液이 안에서 지켜질 수 없으면 夢精 遺精 등이 나타나며, 氣血이 虛衰하여 四肢를 영양하지 못하면, 四肢酸疼 증상이 나타난다. 소건중탕은 비록 寒熱錯雜의 陰陽이

모두 虛한 것을 치료하나, 그 증상표현은 陽虛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임상에서 脾胃가 虛하여 명치 부분이 裏急이고 疼痛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만약 陰虛하여 생긴 熱證, 예를 들면 衄血 煩熱口乾 咽燥 舌絳苔少 脈細數 등에는 소건중탕을 사용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한다.<sup>25)</sup>

[原文] 6-12

小建中湯方

桂枝三兩<sup>①</sup> 甘草二兩<sup>②</sup> 芍藥六兩, 大棗十二枚, 生薑三兩, 飴糖<sup>③</sup>一升

上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內膠飴, 更上微火消解, 溫服一升, 日三服.

[校勘]

①桂枝三兩: 趙開美本에는 ‘去皮’ 두 글자가 더 들어 있다.

②甘草二兩: 趙開美本에는 ‘炙’자가 더 있다.

③飴糖: 趙開美本에서는 ‘膠飴’이 ‘膠飴’로 되어 있다.

[解釋]

소건중탕

계지 3냥, 감초 2냥, 작약 6냥, 대조 12알, 생강 3냥, 교이 1되.

위의 6가지 약을 물 7되에 넣고 3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교이를 넣고, 다시 약한 불에 녹여 매번 1되씩 하루 3번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구역질나는 데는 건중탕을 쓸 수 없는데 이것은 맛이 달기 때문이다.

[原文] 6-13

虛勞裏急, 諸不足, 黃芪建中湯主之.

[解釋]

虛勞病으로 속이 당기는 것과 모든 부족한 證에는 黃芪建中湯으로 치료한다.

[注]

2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1.

裏急者，裏虛脈急，腹中當引痛也。諸不足者，陰陽諸脈，并俱不足，而眩，悸，喘喝，失精，亡血等證，相因而至也。急者緩之必以甘，不足者補之必以溫，而充虛塞空，則黃芪尤有專長也。

[解釋]

裏急이라는 것은 속은 虛하고 脈이 당기므로 芻속이 당연히 당기면서 아픈 것이다. 諸不足라는 것은 陰과 陽 그리고 여러 脈이 부족한 것으로 現기증, 가슴이 두근거림, 숨 헐떡임, 失精, 亡血 등 증상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急한 것을 완만하게 하려면 반드시 甘한 약을 사용해야 하고, 不足한 것을 補하려면 반드시 따뜻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芻빈 것을 채우고 芻한 것을 보충하는 경우는 黃芪가 특히 長점이 있다.

[按]

본 조문은 위 조문과 구별이 있다. 황기를 쓴 것으로 보건대 自汗이나 盜汗, 身重 혹은 不仁의 증상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황기건중탕은 임상에서 胃脘痛에 상용되며, 그 病機는 脾胃虛寒에 속한다.<sup>26)</sup>

[原文] 6-14

黃芪建中湯方

卽小建中湯內加黃芪一兩半，餘依上法。氣短，胸滿者，加生薑。腹滿者，去棗，加茯苓一兩半，及療肺虛損不足，補氣，加半夏三兩。

[解釋]

黃기건중탕

小建中湯에 黃芪 1냥 5푼을 加하고 其他는 前條의 小建中湯과 같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생강을 加하고, 배가 그득한 경우는 대추대신에 茯苓 1냥 5푼을 加하며, 肺의 虛損不足을 治療하는 경우는 氣를 補하는 半夏 3냥을 加한다.

[原文] 6-15

虛勞腰痛，少腹拘急，小便不利者，八味腎氣丸主之。

[解釋]

虛勞에 허리가 아프고, 少腹部가 당기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八味腎氣丸을 쓴다.

[注]

下焦之分，少陰主之，少陰雖爲陰臟，而中有元陽，所以溫經臟，行陰陽，司開闔者也。虛勞之人，損傷少陰腎氣，是以腰痛，少腹拘急，小便不利，程氏所謂腎間動氣已損者是矣。八味腎氣丸補陰之虛，可以生氣，助陽之弱，可以化水，乃補下治下之良劑也。

[解釋]

下焦는 少陰이 주관하는데 少陰은 陰臟이지만 그 속에 元陽이 있으므로, 經絡, 臟腑를 따뜻하게 하고, 陰陽을 행하게 하며, 開闔을 주관한다. 虛勞 환자가 少陰腎氣가 손상되어 허리가 아프고 少腹部가 당기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程氏가 말하는 “腎間動氣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八味腎氣丸은 陰이 虛한 것을 補하여 氣를 生하게 할 수 있으며, 陽이 弱한 것을 도와 水로 變化시킬 수 있으니, 下部를 補하고, 또한 下部를 治療하는 좋은 처방이다.

[按]

‘少腹拘急’의 원인에 대하여 腎陽虛하여 濡養하지 못하기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는데 『醫宗金鑑』에서는 膀胱의 氣化不利로 보고 있다.<sup>27)</sup> 少腹은 膀胱이 있는 곳인데 腎과 膀胱은 또 서로 表裏관계이므로 少腹拘急은 腎 膀胱에 모두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28)</sup>

[原文] 6-16

八味腎氣丸方 見婦人雜病

[解釋]

팔미신기환 처방은 부인잡병편을 참고하라

[原文] 6-17

27)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503.

28)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03.

2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1.

虛勞諸不足，風氣百疾，薯蕷丸主之。

[解釋]

虛勞로 여러 가지 부족한 證과 풍으로 생긴 온갖 병에는 서여환으로 치료한다.

[注]

虛勞證多有挾風氣者，正不可獨補其虛，亦不可着意去風氣。仲景以參，地，芎，歸，苓，朮補其氣血，膠，麥，薑，棗，甘，芍益其營衛，而以桔梗，杏仁，桂枝，防風，柴胡，白斂，黃卷，神麴去風行氣，其用薯蕷最多者，以其不寒不熱，不燥不滑，兼擅補虛去風之長，故以爲君，謂必得正氣理而後風氣可去耳。

[解釋]

虛勞證에는 風氣를 겸한 것이 많으므로, 虛만 補하여도 안되고, 風氣를 없애려고만 해도 안 된다. 仲景은 人參, 地黃, 川芎, 當歸, 茯苓, 白朮로 氣血을 補하고, 阿膠, 麥冬, 乾薑, 大棗, 甘草, 芍藥으로 營衛를 키워 주며, 桔梗, 杏仁, 桂枝, 防風, 柴胡, 白斂, 黃卷, 神麴으로 去風行氣하였는데, 薯蕷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燥하지도 않고 滑하지도 않으며, 겸하여 補虛去風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君藥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반드시 正氣가 가지런해진 다음에, 風氣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按]

이 조문에서는 風氣로 생긴 모든 질병이 虛勞로 인하여 風을 받은 것이므로, 치료에 있어서 調補를 위주로 함을 말하고 있다. 만약 祛風하는 약만을 사용하면, 陽氣를 거듭 손상하여 도리어 風邪가 밖에서 풀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sup>29)</sup>

[原文] 6-18

薯蕷丸方

薯蕷三十分，人參七分，白朮六分，茯苓五分<sup>①</sup>，甘草二十<sup>②</sup>分，當歸十分，乾地黃十分，芍藥六分，芎藭六分，

麥冬六分，阿膠七分<sup>③</sup>，乾薑三分，大棗百枚 爲膏，桔梗五分<sup>④</sup>，杏仁六分，桂枝十分，防風六分，神麴十分，豆黃卷十分，柴胡五分，白斂二分

上二十一味，末之，煉蜜和丸如彈子大，空腹酒服一丸，一百丸爲劑。

[校勘]

①茯苓五分: 趙開美本에는 茯苓의 用量이 9푼으로 되어 있다.

②甘草二十: 趙開美本에는 甘草의 用量이 28푼으로 되어 있다.

③阿膠七分: 趙開美本에는 阿膠의 用量이 10푼으로 되어 있다.

④桔梗五分: 趙開美本에는 桔梗의 用量이 9푼으로 되어 있다.

[解釋]

서여환

서여 30푼, 인삼 7푼, 백출 6푼, 복령 5푼, 감초 20푼, 당귀 10푼, 건지황 10푼, 작약 6푼, 천궁 6푼, 맥동 6푼, 아교 7푼, 건강 3푼, 대추 100개로 膏를 만들고, 행인 6푼, 계지 10푼, 방풍 6푼, 신곡 10푼, 두황권 10푼, 시호 5푼, 백렴 2푼.

위의 21가지 약을 가루 내어 끓인 꿀에 반죽한 다음, 계란 노른자만 하게 환약을 만들어 1알씩 빈속에 술로 먹는데, 100알을 一劑(하루치)로 한다.

[原文] 6-19

虛勞虛煩不得眠，酸棗仁湯主之。

[解釋]

虛勞로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데에는 酸棗仁湯으로 치료한다.

[注]

人寤則魂寓於目，寐則魂藏於肝。虛勞之人，肝氣不榮，則魂不得藏，魂不藏，故不得眠。酸棗仁補肝斂氣，宜以爲君。而魂既不歸容，必有濁痰燥火乘間而襲其舍者，煩之所由作也，故以知母，甘草清熱滋燥，茯苓，川芎行氣除痰，皆所以求肝之治，而宅其魂也。

[解釋]

2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3.

사람이 깨면 魂이 눈에 머무르고, 잠이 들면 魂이 肝에 저장된다. 虛勞 환자가 肝의 氣가 영화롭지 못하면 魂이 저장될 수 없게 되는데, 魂이 저장되지 못하므로 잠을 잘 수 없다. 酸棗仁은 補肝斂氣하기에 君藥으로서 적당하다. 魂이 收容되지 않으면 반드시 濁痰燥火가 틈을 타서 魂이 머무르는 곳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煩躁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다. 知母, 甘草로 清熱滋燥하고 茯苓, 川芎으로 行氣除痰한다. 모든 약은 肝이 치료되어 그 魂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原文] 6-20

酸棗仁湯方

酸棗仁二升, 甘草一兩, 知母 茯苓各二兩, 芎藭一兩上五味, 以水八升, 煮酸棗仁得六升, 內諸藥, 煮取三升, 分溫三服.

[解釋]

산조인탕방

산조인 2되 감초 1냥 지모 복령 각 2냥 천궁 1냥.

위의 5가지 약 중에서 먼저 酸棗仁을 물 8되에 넣고, 6되가 되게 달인 다음 여기에 다른 약들을 넣고, 다시 3되가 되게 달여 3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按]

『金匱要略講義』에서는 “본 증상은 肝陰不足, 心血虧弱하여 발생하는데, 肝陰이 不足하면 內熱을 生하고 心血이 不足하면 心神이 不安해진다. 그래서 虛煩失眠하게 된다. 酸棗仁湯으로 치료하는데 처방 중의 酸棗仁은 養肝陰하고, 茯苓, 甘草는 寧心安神하고 知母는 清虛熱하고, 川芎은 理血疏肝하여 전체적으로 養陰清熱, 安神寧心の 효과가 있다.”<sup>30)</sup>라고 하여, 『金匱要略心典』에서 肝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原文] 6-21

五勞虛極羸瘦, 腹滿不能飲食, 食傷, 憂傷, 飲傷, 房室<sup>①</sup>傷, 飢傷, 勞傷, 經絡營衛氣傷, 內有乾血, 肌膚甲錯, 兩目暗黑. 緩中補虛<sup>1)</sup>, 大黃蠪蟲丸主之.

[校勘]

①室: 趙開美本에는 ‘食’자로 되어 있다.

[注釋]

(1)緩中補虛: 『醫宗金鑑』에서는 “緩中補虛’라는 네 글자는 마땅히 ‘不能飲食’의 뒤에 있어야 옳은 것이니, 필시 轉寫의 잘못이라고 보고, ‘緩中補虛’는 앞의 建中等方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1)</sup>

[解釋]

五勞로 몸이 매우 지치고 아위어 衰하며, 배가 그득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이것은 暴食, 過度한 걱정, 暴飲, 房室過度, 지나친 굶주림과 勞動 등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받아 經絡과 營分, 衛分의 氣가 傷하게 되어, 瘀血이 체내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피부가 거칠어지며 눈 주위가 거무스레해진다. 緩中補虛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며 大黃蠪蟲湯으로 치료한다.

[注]

虛勞症有挾外邪者, 如上所謂風氣百疾是也. 有挾瘀鬱者, 則此所謂五勞諸傷, 內有乾血者是也. 夫風氣不去, 則足以賊正氣而生長不榮. 乾血不去, 則足以留新血而滲灌不周, 故去之不可不早也. 此方潤以濡其乾, 虫以動其瘀, 通以去其閉, 而仍以地黃, 芍藥, 甘草和養其虛, 攻血而不專主於血, 一如薯蕷丸之去風而不着意於風也. 喻氏曰: 此世俗所稱乾血勞之良治也. 血瘀於內, 手足脈相失者宜之, 兼入瓊玉膏補潤之劑尤妙.

[解釋]

虛勞症에는 外邪를 낀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風氣百疾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血瘀와 鬱滯를 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五勞로 인한 모든 손상에 내부에 乾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무릇 風氣가 사라지지 않으면 정기를 상하여

3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73.

31) 吳謙. 醫宗金鑑. 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504.

生長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乾血이 사라지지 않으면 新血을 막아 온 몸으로 두루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처방은 윤택한 성질로 마른 것을 적셔 주고, 蟲으로 瘀血을 움직이며, 통하게 하여 막힌 것을 제거하면서도 여전히 地黃, 芍藥, 甘草로 그 허를 調和시키고 補養하니, 攻血하면서도 전적으로 血에만 주력하지 않아, 蓄積으로 풍을 제거하면서도 그 힘을 풍에만 두지 않는 것과 같다. 喻氏(喻昌)는 “이것이 世俗에서 말하는 乾血勞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다.”라고 하였다. 血이 안에서 막혀 손과 발의 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니, 補潤之劑인 瓊玉膏를 兼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按]

虛勞로 瘀血이 생긴 乾血勞는 乾血이 가시지 않으면 새로 생긴 血을 막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大黃蠅蟲丸으로 破血祛瘀하는데 이 처방은 攻血하면서도 血에만 머무르지 않고 養血扶正할 수 있으므로 乾血을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다.

[原文] 6-22

大黃蠅蟲丸方

大黃十分 蒸, 黃芩二兩, 甘草三兩, 桃仁一升, 杏仁一升, 芍藥四兩, 乾地黃十兩, 乾漆一兩<sup>①</sup>, 蠅蟲一升<sup>②</sup>, 水蛭百枚<sup>③</sup>, 蟪蟪百枚<sup>④</sup>, 蠅蟲半升<sup>⑤</sup>

上十二味, 末之, 煉蜜和丸, 小豆大, 酒服五丸, 日三服.

[校勘]

①乾漆一兩: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燒令烟盡’이라는 글이 있다.

②蠅蟲一升: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去翅, 足, 熬’라는 글이 있다.

③水蛭百枚: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熬’라는 글이 있다.

④蟪蟪百枚: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熬’라는 글이 있다.

⑤蠅蟲半升: 雙白燕堂本에는 뒤에 ‘熬’라는 글이

있다.

[解釋]

대황자충환

대황 10푼, 쥘 것, 황금 2냥, 감초 3냥, 복숭아씨 1되, 행인 1되, 작약 4냥, 건지황 10냥, 건칠 1냥, 맹충 1되, 수질 100개, 제조 100개, 자충 반되.

위의 12가지 약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한 다음 꿀알 만하게 환약을 만들어 매번 5알씩 하루 3번 술로 먹는다.

[原文] 6-23

附方

『千金翼』炙甘草湯 治虛勞不足, 汗出而悶, 脈結, 悸, 行動如常, 不出百日, 危急者十一日死.

甘草四兩 炙, 桂枝 生薑各三兩, 麥冬半升<sup>①</sup> 麻仁半升, 人參 阿膠各二兩, 大棗三十枚, 生地黃一斤

上九味, 以酒七升, 水八升, 先煮八味, 取三升, 去滓, 內膠消盡, 溫服一升, 日三服.

[校勘]

①麥冬半升: 趙開美本에는 麥門冬의 용량이 ‘一升’으로 되어 있다.

[解釋]

『千金翼』炙甘草湯: 虛勞不足으로 땀이 나고 답답해하며 結脈이 나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정상인 것 같지만 100일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 몹시 심한 경우는 11일만에 죽는다.

자감초 4냥, 계지 생강 각각 3냥, 맥문동 1되, 마자인 반되, 인삼 아교 각각 2냥, 대추 30개 생지황 1근.

위의 9가지 약에서 먼저 阿膠를 뺀 8가지 약을 술 7되, 물 8되와 함께 넣고 3되가 되게 달여 찌꺼기를 버린 다음 阿膠를 넣고 녹여서 1되씩 하루 3번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注]

脈結는營氣不行, 悸則血虧而心無所養, 營滯血虧, 而更出汗, 豈不立槁乎? 故雖行動如常, 斷云不

出百日死，知其陰亡而陽絕也。人參，桂枝，甘草，生薑行身之陽，膠，麥，麻，地行身之陰，蓋欲使陽得復行陰中而脈自復也。後人只喜用膠，地等而畏薑，桂，豈知陰凝燥氣，非陽不能化耶。徐氏

[解釋]

脈이 結한 것은 營氣가 行하지 않는 것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血이 虛하여 心이 營養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營이 막히고 血이 소모되었는데 더 땀을 내면 어찌 즉시 시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행동은 보통 때와 같지만 단연코 백일이 지나지 않아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니, 그 陰과 陽이 없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人參 桂枝 甘草 生薑으로 몸의 陽을 行하게 하고, 阿膠 麥冬 麻仁 地黃으로 몸의 陰을 行하는 것은, 陽이 陰中에서 다시 운행되게 하여 맥이 스스로 회복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후세인들은 阿膠, 地黃을 자주 사용하고 生薑, 桂枝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 어찌 陰이 응체된 것과 燥한 氣는 陽이 아니어서는 化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서씨 학설)

[原文] 6-24

『肘後』癩肝散 治冷勞，又主鬼疰一門相染。癩肝一具，炙乾末之，水服方寸匕，日三服。

[解釋]

『주후』달간산: 冷勞를 치료한다. 또 鬼疰가 한 가정에서 서로 전염되는 것을 치료한다. 수달의 간 1개를 구워 말려서 가루 내어 사방 1寸의 순가락으로 떼서 하루에 3번 물로 먹는다.

## IV. 결론

『金匱要略心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의 원문과 尤在涇의 주석을 번역하고 다른 주석들과 비교 분석하여 尤在涇 주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尤在涇은 血痺의 원인이 주로 陽氣가 虛하여 衛外

不固한 것이라 하여, 風邪의 침입이 주된 원인인 風痺와 구별하고 있다. 血痺의 '陰陽俱微'에 대하여 '該人迎，跌陽，太溪爲言'이라고 하면서 몸의 전체적인 脈象으로 해석하고 있다.

虛勞의 喘症의 원인에 대하여는 氣虛 혹은 陽虛로 보아 일반적으로 '腎不納氣'로 보는 견해와 차이가 있다.

中氣의 의미에 대하여는 中을 陰陽의 고동이며 營衛가 생성되는 脾胃로 보아, 和陰陽 調營衛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中氣를 확립하는 治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문헌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3. 王占璽 主編. 金匱要略臨床研究.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4. 李彤 撰.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5.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6.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8.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9.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